

개발제한구역? 산소생산구역!

35명의 푸른숲선도원들은 그린벨트 체험캠프에서
그린벨트체험걷기, 그린벨트 앨범 만들기등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소중히 보존해야할 그린벨트지역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린벨트라는 이름 대신에 산소생산구역으로 다시 이름도 짓고,
개발제한구역으로 6행시도 지어보았습니다.

- 주 최 : 서울특별시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 주 관 : 서울그린트러스트
- 도 음 : 한그루녹색회, 북한산초등학교
- 참가대상 : 보인중, 경희중, 중평중, 화곡중 푸른숲선도원 총 35명
- 일시 : 2007년 7월 30일(월)~7월 31일(화)
- 장 소 : 북한산초등학교 야영장 및 인근 그린벨트 지역



우리는 훼손되어 가는 그린벨트의 소중함을 배우기 위해 '북한산 그린벨트 체험캠프'에 참가하였다. 7월 21일에 서울숲에서 예비모임을 갖고 강의도 들었다. 그때 자연벨트가 없으면 도롱뇽이나, 땀꿍이, 등 천연 기념물들이 사라진다고 들었다. 정부는 중요한 생물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천연 기념물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산부분에는 자연벨트가 쳐져있는 부분이 있어, 매우 환경이 깨끗하고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 있다고 한다. 자연벨트란 개발제한구역이라고도 하며,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설치한 구역이다. 너무나 무분별한 계획으로 인해 자연이 많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지금 이런 체험교육과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곳에서 우리는 자연벨트지역을 직접 둘러보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왔다.

우리가 사는 근처에도 청량산이 있고 자연벨트로 정해져 있는데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한다는 소식이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가끔 산을 오르면 음식점이 많이 들어서 있고 오·폐수가 그대로 학암천으로 방류되는 것을 본다. 앞으로 이런 캠프가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려서 그린벨트의 소중함이나, 자연의 소중함을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푸른숲선도원 활동을 처음 해 본 나로서는 이런 참여의 기회가 무척 소중하게 느껴졌다. 작은 나 무가 나라면 앞으로 꾸준한 활동으로 거목이 되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껴본다.

〈글/이강타(보인중학교 푸른숲선도원)〉